

두산인문극장 2026: 신분류학 New Taxonomy

유죄와 무죄: 그 연약한 구분

김기창

2026년 6월 29일 저녁 7:30~9:30 @두산아트센터 연강홀

* 본 강연은 촬영할 수 없습니다.

* 강연 후 발송하는 문자 설문에 응답 부탁드립니다.

주요 논의 내용

- 소크라테스 사건
- 예수 사건
- 공야장 사건
- 유죄와 무죄의 올바른 구분을 밝히는 등불

기원전 399년 신성모독과 젊은이들을 타락시킨다는 죄목으로 기소된 소크라테스는 사형을 선고받았다. 사형 집행 직전에 탈옥해 목숨을 건질 기회가 있었는데도 소크라테스는 탈옥을 거부했다. 오랫동안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라는 생각에서 사형을 순순히 받아들였다는 설명이 있어 왔다. 하지만 1990년대에 와서 이 설명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는 지적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소크라테스의 변론 과정을 살펴보면 그는 자신에 대한 유죄 판결이 아테네 법이나 정의에 부합한다고 여긴 적 없다. 또한 자신이 부당한 사법 살인의 피해자라는 점을 확신한다. 탈옥 권유를 거절하는 논거를 담은 문헌에 따르면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네. ... 제대로 산다는 것은 품위 있고 정의롭게 사는 것이지.”(크리톤 48b)라는 것이 그의 입장이었던 것이지, 악법도 법이니 법은 무조건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 결코 아니었다.

기원후 33년경 또 다른 사법 살인의 피해자 예수는 그리 길지 않았던 삶 대부분을 율법사들을 비판하는 데 집중했다. 이들은 율법에 기반한 신정 체제에서 율법 해석 업무를 총괄하는 자들이었다. 예수는 이들이 외형적 율법 준수에 집착하면서 정작 중요한 정의, 관용, 신의와 같은 법의 핵심 가치를 손상한다고 비판한다. 이에 율법사들은 당시 최고 권력자인 대제사장들과 함께 예수를 신성모독, 메시아 참칭, 유대왕 참칭, 안식일 관련 율법 위반, 반란 선동 등의 혐의로 소추한다. 예수에게 사형 판결을 내릴지를 결정하는 권한은 유대 지역을 관할하는 빌라도 총독에게 있었다. 빌라도는 예수의 언행에는 유죄 판결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지만, 유대인들의 집요한 요구에 결국 사형 집행을 승인한다. 예수 또한 자신의 결백을 확신한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옳음을 추구하라는 굳건한 가르침(마태복음 10:28)을 남겼다는 점에서 예수와 소크라테스는 비슷하다.

기원전 5세기 공자가 살던 시대에도 그릇된 판결은 물론 있었다. 논어 제5편은 공자가 옥살이를 무릅쓰고 용감하게 행동한 공야장을 높이 평가해 사위로 삼은 이야기로 시작한다. 이어 언급되는 남용은 관직에 오르기도 했고 신중한 처신으로 옥살이도 면했는데, 공자는 그를 조카사위로 삼았다. 이는 억압적 정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해 공자와 제자들이 취한 태도를 함축적으로 보여준다. 사법 제도와 공권력 행사가 정의롭지 못한 경우, 옥살이를 면한 남용보다 공야장을 더 높이 평가한 것이다.

유죄와 무죄는 법에 따라 나뉘는 구분이다. 그러나 유죄를 선고받은 자가 죄인인지, 유죄를 선고하는 자가 더 중한 죄인인지는 법에 따른 분류가 아니다. ‘법’이 아니라 무엇이 옳은지, 정의로운지에 관한 기준, 즉 ‘윤리’에 따라 정해질 수밖에 없는 문제이다. 올바른 도리가 지켜지지 않는 무도한 나라일수록 법 집행은 윤리에 어긋나게 마련이다. 이를 바로잡기 위한 철학적 해법은 소크라테스, 종교적 해법은 예수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한편 공자는 이 문제에 대한 실천 윤리적 해법을 ‘예법’과 ‘배움’과 ‘윤리적 결기’에서 찾았다. 하지만 법과 정의에 관한 소크라테스의 입장이 왜곡되어 왔듯이 공자의 가르침 또한 잘못 전달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사회 정의가 무너지고 비열한 자들이 권력을 행사하는 형국이 되면, 현자는 세상을 피하고(현자피세) 지혜롭고 어진 사람은 산 좋고 물 좋은 곳을 찾아다니며(요산요수) 자연과 함께하는 안빈낙도의 삶을 즐기며 장수한다(인자수)는 식의 논어 해석은 이기적인 처신을 조장하고 현실도피를 정당화하는 핑계를 제공한다. 하지만 공자는 듣고 보고 배워 깨달은 것을 적절한 때에 실천하라고 가르쳤다(논어 1.1). 유죄와 무죄의 구분은 연약하다. 윤리 예법에 어긋나는 올바르지 않은 정부 하에서는 올바른 사람이 옥살이를 하게 될 수도 있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그러나 “목숨을 바쳐서라도 윤리적 결기를 완성하라”는 공자와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은 유죄와 무죄의 연약한 법적 구분이 엉망진창이 되지 않도록 바로잡아 주는 것이며, 어둡고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들이 그나마 올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등불과 같은 것이다.

김기창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자 변호사. 민법, 서양법제사, 로마법 등에 대한 연구와 강의에 더해 공자의 사상과 논어에 대한 법철학적 해석에 관심이 있다. 내국인과 외국인의 법적 구분이 영국에서 14세기 말에 어떻게 등장하기 시작했는지를 다룬 책 *Aliens in Medieval Law*(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를 출간했다. 공자에 대한 저서로 『새롭게 만나는 공자』(2021), 『금서의 귀환, 논어』(2026)가 있다.

